

## 『한민족어문학』 제81집 편집자의 말

제81집에 실린 논문은 총 10편으로 (한)국어교육 5편, 구비문학 1편, 현대문학 4편이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시대로 접어드는 전조가 완연하고 이에 대응한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의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다. 본 학술지는 한국어문학의 기초분야 연구를 자극하고 그 성과를 게재하는 것을 제1과제로 삼는 동시에 도래하는 시대의 정신을 선도하고 성찰하는 선도적 연구들 또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포용하는 등의 개방성을 견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조성숙의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의 통합 검토 및 방향’, 김성환의 ‘전화 대화상의 ‘맞장구’ 사용 양상 연구 -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석주연의 ‘중등 교원 임용 시험 문법 영역 문항에 대한 분석 연구: 2014년~2018년의 출제 문항을 중심으로’, 위국봉의 ‘/L/ 첨가의 교육 방안 연구’, 김윤주의 ‘프랑스 한글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 교사 인터뷰 및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로 모두 5편이 실렸다.

조성숙의 ‘경남대학교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의 통합 검토 및 방향은 경남대학교 의사소통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살폈다. 그 중 인문사회계 교과목인 <창의글쓰기>와 <독서와 토론>의 과목학습목표를 비교하여 읽기와 쓰기 역량의 목표가 상이함을 드러내었다. 이어서 한국교육양기초교육원의 의사소통 교육의 9가지 필수 평가요소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 교수자의 특성, 교재의 구성과 수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대학교의 통합교과 실현은 어려운 것으로 논의하였다. 경남대학교의 지역적 특성

상 통합보다는 의사소통 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분화된 교수과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과 교수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읽기 향상을 위한 조직 지원과 독서를 장려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성환의 ‘전화 대화상의 ‘맞장구’ 사용 양상 연구 -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대화상에서 나타나는 ‘맞장구’ 사용 양상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 전화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서 맞장구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인 자신이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방 발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에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베트남 학습자의 전화 대화상의 맞장구 사용 양상의 비교를 통해서 같은 아시아권에 속하지만 맞장구라는 전화 예절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한국사회의 전화예절인 맞장구 사용에 관한 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석주연의 ‘중등 교원 임용 시험 문법 영역 문항에 대한 분석 연구: 2014년~2018년의 출제 문항을 중심으로’는 중등 교원 임용 시험이 객관식 문항을 지양하기 시작한 이후,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중등 교원 임용 시험 문법 영역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위국봉의 ‘/ㄴ/ 첨가의 교육 방안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ㄴ/ 첨가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데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ㄴ/ 첨가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해당 문제는 기존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ㄴ/ 첨가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음 오류 분석을 진행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윤주의 ‘프랑스 한글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 교사 인터뷰 및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는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운영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해외 한글학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구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강명혜의 ‘강원도 오음산 산신제의 현 실태 및 향유자 의식에 따른 집단무의식-월운리를 중심으로-’로 1편이 실렸다. 강명혜의 ‘강원도 오음산 산신제의 현 실태 및 향유자 의식에 따른 집단무의식-월운리를 중심으로-’는 강원도 오음산 산신제가 현재까지 한 마을에서 들로 나누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 채록, 연구한 바가 없다. 이것을 상세히 채록해서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이 글의 의의가 있으며, 오음산 산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향유의식도 조사를 해서 채록, 의미를 밝혀보려고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박한라의 ‘백석 시에 나타난 ‘나열과 반복’ 구조 연구’, 한용국의 ‘한용운 시의 숭고지향 연구’, 박소영의 ‘1970년대 호스티스 수기의 영화화 연구 -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26x365=0(無)] 을 중심으로 -’, 김윤정의 ‘박인환 모더니즘의 필름 느와르와의 상관성 연구’ 모두 4편이 실렸다.

박한라의 ‘백석 시에 나타난 ‘나열과 반복’ 구조 연구’는 백석 시에 나타난 나열과 반복의 원리와 효과를 무의식 층위에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감각의 나열은 개념에서 벗어나 무의식 층위에서 신체가 느낀 존재성을 구체화 하며, 행위의 반복은 실재를 환상 층위로 확산하는 동시에 현실의 행위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한용국의 '한용운 시의 숭고지향 연구'는 한용운 시에 드러난 님과의 합일에 대한 열망과 그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숭고'라는 미학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았다. 한용운 시의 미학적 측면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대시의 부정성과 전위성이 근대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소영의 '1970년대 호스티스 수기의 영화화 연구 -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26x365=0(無)]을 중심으로 -'는 1970년대 세 편의 호스티스 영화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26x365=0(無)]와 그 원작인 수기문학을 분석하였다. 비전문가의 글이자 주변인의 자기고백인 그들의 수기가 영화로 각색되면서 호스티스들의 인정욕망과 자기긍정이 70년대 사회질서에 의해 모두 탈락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운정의 '박인환 모더니즘의 필름 느와르와의 상관성 연구'는 1950년대 모더니스트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시의 고유성에 준해서라기보다 흔히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는 박인환의 시적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게 위해 쓰여졌다. 1930년대 이미지즘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박인환 시의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는 의미화되기 어렵다. 박인환이 초기에 리얼리즘적 경향의 시를 썼다는 점도 같은 이유에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박인환 시를 새로운 기준과 범주에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본고는 이를 위해 필름느와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더니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